

# 대학 신입생을 위한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이 심리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효과

이미영

호원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 The Effect of a Group Program Designed to Resolve the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of University Freshmen on Their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Self-Determination

Mi-Young Lee

Professor, Dept. of Psychotherapy & Counseling, How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이 느끼는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하고, 심리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처치집단에 8명, 비교집단에 9명을 할당하여 처치집단에는 7회기에 해당하는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비교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각각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심리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검사를 실시한 후 사전 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심리적 진로장벽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결정성점수는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집단프로그램은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인식을 낮추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와 활용과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대학 신입생, 심리적 진로장벽, 집단프로그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organize and apply a group program designed to resolve the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of university freshmen and test its effects on their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self-determination. For this purpose, the investigator divided the subjects into a treatment group of eight and a comparison group of nine, implemented a group program designed to resolve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over seven sessions, and applied no treatment to the comparison group. In an effort to examine the program's effects, the investigator conducted tests on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self-determination in the pre- and post-test both in the treatment and comparison groups and examin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m.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treatment group made a significant decrease to its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scores compared to the comparison group; second, the treatment group made a significant increase to its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scores compared to the comparison group; and finally, the treatment group also made a significant increase to its self-determination scores compared to the comparison group with a significant enhancement. That is, the program was effective for lowering the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of university freshmen and improving their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self-determination. The study also discusses the utilization of its findings and future study.

**Key Words** : University freshmen,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Group program,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Self-determination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Howon University (2018).

\* Corresponding Author: Mi-Young Lee(mylee@howon.ac.kr)

Received August 17, 2018

Revised September 27, 2018

Accepted October 20, 2018

Published October 28, 2018

## 1. 서론

진로는 인간의 일생을 통해 발달하는 전 생애 과정의 하나이며,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발전시켜 진로를 잘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하여 직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치열한 입시위주와 과열 경쟁구도 속에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충분히 경험하고 탐색하지 못한 채 진로를 결정하거나, 자신의 결정이 아닌 부모나 중요한 타인의 결정에 의존하여 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생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1]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와 직업선택의 문제로 나타났다. 즉, 상담 받고 싶은 내용의 1순위로 진로문제가 58.4%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6%가 현재 스트레스의 원인이 진로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 et al.[2]의 연구 결과, 대학 신입생들은 진로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취업스트레스가 높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 적응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밝혔으며[3], 특히 대학 신입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정해 나갈 때 취업과 직업에 관한 기대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대학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진로에 대한 학습된 무기력이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 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4]를 통해 볼 때 진로지도에 대한 개입은 신입생 때부터 초기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 신입생들은 여전히 진로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기 확신이 없음을 호소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즉, 효과적인 진로지도는 대학 신입생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진로발달연구자들은 진로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주로 지각된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진로결정과 진로선택에 어려움이 있음을 발표하였다[5-7]. Swanson, Deniels 및 Tokar[8]에 따르면 진로장벽은 진로와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이나 목표, 동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진로 행동에 방해가 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인 사건이나 상황 등을 통칭한다. 진로장벽은 대학생으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못한 진로결정을 하거나 진로미결정을 보이게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 속에서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진로장벽과 관련된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9]. 진로장벽을 연구한 Son[9]은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 실현을 방해하는 내·외적 요인들을 진로장벽이라고 정의하였다. 내적 요인은 심리적인 장벽들이며, 외적 요인은 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장벽들을 의미한다. Cha et al.[10] 역시 진로장벽을 심리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며 심리적 진로장벽은 진로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자신감 부족이나 성격적인 문제 등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적 진로장벽은 진로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신체조건이나 나이, 학벌 등과 같은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진로장벽을 의미한다. Ko et al.[11]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적 진로장벽 즉, 심리적 진로장벽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적 진로장벽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적 진로장벽과 내적 진로장벽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진로장벽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Joe[12]는 대학생 진로장벽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을 통해 개인특성 변인, 맥락 변인, 인지 변인, 진로발달수준 변인의 4개의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개인특성 변인 중에서 성별에 관한 연구물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여주었다. 즉, 여성의 진로장벽이 남성보다 더 높다고 밝힌 연구[8,10,13]와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지각한다고 밝힌 연구들[14,15]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밝힌 연구들[16,17]이 있었다. 하지만, 학년과 심리적 진로장벽의 관계에서는 저학년이 고학년보다[18], 지방소재 대학생의 경우 1학년이 4학년보다, 서울소재 대학생의 경우 1학년이 3학년보다[19] 심리적 진로장벽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학 신입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진로에 대한 고민과 심리적인 어려움을 지각하는 것을 시사한다. 대학 신입생들은 아직은 대학 생활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고 자신이나 진로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외적인 장벽 요인들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지 못하거나 심각

하게 고민하면 할수록 바꿀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심리적인 좌절감을 느낀 채 심리 내적인 불안과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 중에서 심리적 진로장벽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외적 진로장벽은 각 개인마다 또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준비된 자원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단기간 내에 변화시키기엔 제약이 많은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개인 내적인 요인에 해당하는 심리적인 진로장벽을 해소하는 접근을 집단프로그램에 적용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서는 인지적 판단을 포함한 개인적인 특성, 외적인 환경, 그리고 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진로발달을 한다고 보았다[20]. Swanson과 Witke[21]는 진로장벽 개념이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적용될 때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신감 부족이나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 내적인 진로장벽이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생각된다. 연구자들은 진로장벽과 관련된 변인 연구에서 Bandura[22]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근거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진로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국내의 연구결과들[23-27, 49]은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한 심리기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Kim et al.[23]은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으며, 특히 Kim[25]은 대학 신입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신입생을 위한 진로상담에 있어서 신입생들이 느끼는 진로장벽에 대한 탐색과 더불어 진로장벽에 대처하는 방식을 평가해봄으로써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하고 과거 성취경험을 자각하도록 하는 자기효능감 향상 전략이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 간의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진로장벽의 하위영역 중 직업정보 부족 뿐만 아니라 자기명확성 부족, 미래불안 등 개인내적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상담에 심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28]은 과제를 수행할

때 강화전략으로 처벌중심이나 외적보상을 활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지각하는 자기결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내재적인 동기가 유발되어 자신의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기결정성은 개인이 얼마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통제나 조절을 잘 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의 정도를 의미하며[29], 자기결정성 이론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중요성을 조명하는 개념으로서 그 동안 학업성취, 건강, 심리치료, 진로장벽 등에 적용되어 왔다[28,30-32]. 또한 진로탐색활동은 내재적인 동기유발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자기결정성과 대학생의 진로의 관련성을 연구한 Kim[30]과 Lee et al.[34]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자기결정성과 진로장벽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Han[35]은 대학생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율성 지각이 유능감 지각보다 선행된다는 모형을 검증하였다. 특히 Guay et al.[3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진로 미결정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부모나 또래의 자율적인 지지가 강하고 통제가 약할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자율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즉, 대학생의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교육 방안으로 자기결정성 제고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대학 신입생이 느끼는 심리적인 진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심리적인 진로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진로결정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전략과 함께 동기적인 측면인 자기결정성을 증진시키는 전략들이 유효할 수 있다.

각 대학들은 대학생들의 진로문제를 돕기 위해서 진로 및 취업지원 부서를 설치하고 다양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도 대학생활의 초기 적응과 진로지도의 일환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진로상담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제공함으로써 진로발달과업뿐만 아니라 취업과의 연계에도 중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7], Kim[38]과 Yoon[39], Kim et al.[26], Park et al.[40]의 연구에서는 진로지도를 통해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o et al.[27]와 Kim[50]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미결정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밝혔다. Ha et al.[41]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진

로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며 이로 인해 진로상담을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한다고 하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진로프로그램을 대학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이 느끼는 심리적인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심리적인 진로장벽을 해소하는 전략과 더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을 높이는 전략들을 대학 신입생들에게 적용한 후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활의 조기적응과 진로발달 지원이 필요한 신입생들에게 진로 및 취업지원 부서가 제공할 수 있는 진로프로그램의 하나로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에 참가한 처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심리적 진로장벽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할 것인가?
- 연구문제2.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에 참가한 처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인가?
- 연구문제3.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에 참가한 처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자기결정성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할 것인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K시 소재 4년제 대학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시작과 더불어 대학생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대학 내 지원 부서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 중에서 처치집단과 대기자 비교집단에 각각 9명씩 무선 할당하였다. 처치집단과 대기자 비교집단 각각의 개입 전에 심리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 문항으로 구성된 사전설문을 실시한 후 2018년 3월 2주부터 4월 4주까지 총 7회기에 걸쳐서 각 집단별로 한회기 당 120분씩 심리적 진로장벽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대기자 비교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실험이 끝난 7주 이후에 진로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아울러 집단프로그램 후 사전설문과 동일한 내용의 사후설문을 실시하였다. 처치집단에 참여한 이들 중에서 집단프로그램에 2회 불참하고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마지막 날에 참여하지 않은 불성실한 1명을 제외하고 처치집단 8명, 대기자 비교집단 9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처치집단은 19.5세( $SD=1.9$ ), 비교집단은 21.6세( $SD=.24$ )이고, 성별은 처치집단은 남자가 37.5%(3명), 여자가 62.5%(5명)이며, 비교집단의 남자가 66.7%(6명), 여자가 33.3%(3명)의 분포를 보였다.

### 2.2 연구도구

#### 2.2.1 심리적 진로장벽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진로모색에 방해가 되는 진로장애 인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Kim[19]이 개발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진로장벽검사와는 달리 장벽내용을 심리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장벽은 직업정보 부족 4문항, 자기진로 이해부족 5문항, 자신감 부족과 성격문제 5문항, 취업의 현실여건 3문항으로 4개 요인, 17문항으로 구성되며, 환경적 장벽은 취업기반부족 4문항, 학벌과 전공 2문항, 나이와 신체조건 3문항, 경비와 집안사정 2문항, 부모와 주변인 2문항으로 5개 영역,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진로장벽 4개 요인 17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진로장벽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Kim[19]의 연구에서의 4개 요인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각각 .81, .70, .71, .5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 .56, .72, .74이었다.

#### 2.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Betz와 Voyten[42]이 개발한 진로결정효능감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직업정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등의 5문항, 목표선택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등의 5문항, 미래계획 '만약 내가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학업 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등의 5문항, 문제해결 요인으로 '앞으로

힘든 상황에서 전공이나 진로목표를 위한 일들을 꾸준히 수행할 수 있다' 등의 5문항, 자기평가가 요인으로 '나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등의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전체 .94, 직업정보는 .67, 목표선택은 .82, 미래계획은 .82, 문제해결은 .64, 자기평가는 .70이었다.

### 2.2.3 자기결정성

자기결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eci와 Ryan[28]이 개발한 Basic Psychological Scale을 Lee et al.[43]이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로 개발 및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자율성(예,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받고 억압받는다고 느낀다), 유능성(예, 나는 내 자신이 매우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관계성(예, 나는 주변 사람들로 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의 3개 하위척도로 각 척도 당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계수(Cronbach  $\alpha$ )는 전체 .83, 자율성 .63, 유능성은 .70, 관계성은 .65로 나타났다.

### 2.2.4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지

프로그램 참여 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와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3문항의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으로 각 문항의 중앙치가 3점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2.3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 내용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Kim[44]과 Kim et al.[45]과 Lee et al.[46]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프로그램들의 공통적인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요소로는 자기이해와 탐색, 진로장벽 인식, 직업세계 이해, 의사결정능력 증진이었고, 환경적 진로장벽 해소 요소로는 취업시장에 부딪치기, 구직기술 습득으로 확인되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의 집단프로그램 구성 요소인 자기이해와 탐색, 직업세계의 이해, 그

리고 진로장벽 인식의 요소를 포함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적으로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 욕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기존의 자기결정성 증진을 위한 집단프로그램[32]을 참고하여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포함하였다. 결국, 연구자가 대학 신입생의 진로상담 프로그램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요소들은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심리적 진로장벽 이해와 자기효능감 발견, 자기결정성 욕구 발견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대학 내 진로 및 취업지원 부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학기 단위로 신청하거나 중간시험 또는 기말시험을 기점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원한다. 또한 프로그램 기간 내에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 일정이 잡혀있는 경우에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여대생의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44,45]에서도 각각 7회기, 8회기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 집단상담의 효과성을 연구한 Kim et al.[23]의 연구에서도 8회기를 실시하였다.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향상 집단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매주 2~3회씩 2주에 걸쳐 12회기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앞선 연구에서는 1회기 당 120분을 구성하였다면 이 연구에서는 1회기 당 90분을 적용하였다. 집중과정을 적용하지 않고서는 대학생들에게 매주 2~3회씩 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기 시작과 더불어 중간시험 이전에 또는 중간시험 이후부터 기말시험 이전에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도록 7회기로 구성하였다. 이후 구성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진로 및 심리상담 전문가이면서 프로그램 개발 관련 연구논문을 3편 이상 발표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아서 수정·보완하였다. 내용타당도는 프로그램 기법의 적합한 정도, 프로그램이 대상에게 적합한 정도, 그리고 흥미나 동기 유발의 정도에 대해서 각각 5점 likert 척도(1점 '매우 적합하지 않다' ~ 5점 '매우 적합하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이 평정한 점수를 가지고 Haxbleton 등이 사용한 CVI 지수(내용타당도 평정법: Content Validity Index)를 산출하였다[47]. CVI 지수는 전문가 2인이 평정한 총 전체 합계점수에 대한 4점('적합하다')과 5점('매우 적합하다')에 평정한 점수의 합의 비율로 산출한다.

Table 1. contents of the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group program

session	main subject	contents
1	opening yard	- program introduction, orientation
		- pre-test
2	self-understanding	- look at your life through career life curves
		- psychological test(HTP) & job preference test
3	understanding of the occupational word	- exploring your own psychology and interest according to test results
		- search for the occupational world
4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 discovery ability(strength) and talents
		- breaking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using sandplay
5	self-efficacy discovery	- expressing coping strategies for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using sandplay
		- exploring and analyzing success experiences
6	self-determination needs discovery	- reevaluation of success experience by self-decision making
		- autonomy, competence, relational needs enhancement activities
7	closing yard	- decorating my day in the future using a sandplay
		- evaluate the program and share your impressions
		- post-test

전문가들이 평가한 CVI 지수를 산출한 결과, 기법의 효과성 CVI=.94, 대상의 적용성 CVI=1, 동기유발 전략 타당성 CVI=.81이었으며, 이는 구성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다. 즉,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은 자기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심리적 진로장벽의 이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욕구 발견을 주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 2.4 분석방법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집단프로그램 참여 유무가 심리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마친 후 사전 검사와 동일한 질문지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이용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 정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실시한 만족도 분석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각 척도의 중앙치와 비교분석하였다.

### 3. 결과

#### 3.1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 확인 결과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동질성 확인을 위하여 심리적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결정성 사전검사의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우선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심리적 진로장벽 점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사전 심리적 진로장벽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27, p>.05$ ). 이는 두 집단이 동질함을 의미한다. 또한 두 집단 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의 사전 동질성 검증 결과, 사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Table 2. results of pre-homogeneity test of treatment group and control group

	scale	group	N	M(SD)	t	
psycho. career barriers	lack of job information	treatment	8	6.12(1.80)	.83	
		control	9	5.44(1.58)		
	lack of self-understanding	treatment	8	7.00(1.85)	.29	
		control	9	6.78(1.20)		
	lack of confidence	treatment	8	8.25(1.28)	.36	
		control	9	8.00(1.58)		
	conditions of employment	treatment	8	4.75(.46)	1.57	
		control	9	4.56(1.23)		
	total	treatment	8	26.12(2.47)	1.27	
		control	9	24.78(4.23)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vocational information	treatment	8	16.5(2.07)	1.58
			control	9	18.55(3.12)	
select goal		treatment	8	17.25(3.53)	.79	
		control	9	18.44(2.69)		
future plan		treatment	8	15.13(2.47)	1.19	
		control	9	17.22(4.35)		
problem-solving		treatment	8	16.63(2.19)	1.96	
		control	9	18.88(2.52)		
self-evaluation		treatment	8	16.88(1.55)	1.92	
		control	9	18.66(2.64)		
total		treatment	8	82.37(9.44)	1.73	
		control	9	91.77(14.52)		
self-determination	autonomy	treatment	8	32.25(6.43)	.63	
		control	9	34.00(4.92)		
	competence	treatment	8	31.62(6.78)	1.16	
		control	9	35.11(5.57)		
	relationship	treatment	8	33.13(6.05)	.94	
		control	9	35.55(4.63)		
total	treatment	8	97.00(17.07)	1.08		
control	9	104.66(11.95)				

지 않았다( $t=1.73, p>.05$ ).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점수에서 두 집단이 동질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결정성 점수 역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t=1.08, p>.05$ ). 두 집단이 동질적임을 확인하였다.

### 3.2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검증 결과

#### 3.2.1 심리적 진로장벽의 효과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집단프로그램 참여 유무가 심리적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 사전 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진로장벽의 두 집단 간 사전 사후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2, p<.05$ ). 심리적 진로장벽의 하위척도를 살펴보면 3개의 하위척도들(자기진로 이해부족, 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 취업의 현실여건)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정보부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7, p<.05$ ). 즉 프로그램 개입한 처치집단의 심리적 진로장벽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차이는 비교집단의 점수 차이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한 진로프로그램은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점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pre-post difference test of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scores according to group

scale	group	N	M(SD)	t
psycho. career barriers	lack of job information	treatment	8 -1.88(1.55)	2.37*
		control	9 .44(.88)	
	lack of self-understanding	treatment	8 -1.50(2.26)	1.52
		control	9 .11(1.45)	
	lack of confidence	treatment	8 -.75(2.49)	1.06
		control	9 .55(2.55)	
	conditions of employment	treatment	8 -.63(1.30)	.91
		control	9 .00(1.50)	
	total	treatment	8 -4.75(4.46)	2.32*
		control	9 .00(4.00)	

\*  $p<.05$

#### 3.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효과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집단프로그램 참여 유무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 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두 집단 간 사전 사후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80, p<.05$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척도를 살펴보면 직업정보( $t=2.91, p<.05$ ), 문제해결( $t=2.27, p<.05$ ), 자기평가( $t=3.89, p<.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목표선택( $t=1.76, p>.05$ ), 미래계획( $t=2.03, p>.05$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프로그램 개입한 처치집단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전 점수와 사후점수 차이는 비교집단의 점수 차이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한 진로프로그램은 대학 신입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pre-post difference test of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scores according to group

척도	집단	N	M(SD)	t
vocational information	treatment	8	4.25(3.57)	2.91*
	control	9	-.44(3.08)	
select goal	treatment	8	2.25(4.71)	1.76
	control	9	-.78(2.04)	
future plan	treatment	8	4.13(3.90)	2.03
	control	9	.33(3.77)	
problem-solving	treatment	8	2.63(3.50)	2.27*
	control	9	-.77(2.68)	
self-evaluation	treatment	8	4.25(3.05)	3.89**
	control	9	1.00(2.50)	
total	treatment	8	17.50(16.96)	2.80*
	control	9	-2.66(12.69)	

\*  $p<.05, ** p<.01$

#### 3.2.3 자기결정성의 효과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집단프로그램 참여 유무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간 사전 사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결정성의 두 집단 간 사전 사후 차이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3.14 p<.01$ ). 자기결정성의 하위척도를 살펴보면 유능성( $t=3.59, p<.01$ ), 관계성( $t=2.31, p<.05$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율성( $t=1.60, p>.05$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프로그램 개입한 처치집단의 자기결정성 사전 점수와 사후점수 차이는 비교집단의 점수 차이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대학 신입생에게 적용한 진로 프로그램은 대학 신입생의 자기결정성 점수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3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결과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8명에게 마지막 회기에 프로그램 만족도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는 평균 4.63( $SD=.55$ )로 나타났다. 둘째, 이 프로그램이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확신에 도움이 된 정도는 평균 4.75( $SD=.41$ )이었으며, 셋째, 이 프로그램이 진로장벽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 정도는 평균 4.63( $SD=.52$ )로 나타났다. 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 신입생들은 이 집단프로그램이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자신의 진로장벽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pre-post difference test of self-determination scores according to group

	scale	group	N	M(SD)	t
self-determination	autonomy	treatment	8	4.25(6.71)	1.60
		control	9	.11(4.40)	
	competence	treatment	8	3.50(5.37)	3.59**
		control	9	-4.33(3.53)	
	relationship	treatment	8	1.38(3.92)	2.31*
		control	9	-5.44(7.45)	
total	treatment	8	9.13(13.42)	3.14**	
	control	9	-9.89(11.53)		

\*  $p<.05$ , \*\*  $p<.01$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집단프로그램이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해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처치집단에 속한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 점수의 사전 사후 차이는 비교집단에 속한 신입생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에 비해 유의한 감소가 확인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직업정보는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평균 점수에 비해 처치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하지만 자기진로 이해부족, 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 취업

의 현실여건에서는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평균 점수가 낮아지기는 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진로장벽 연구에서는 주로 진로장벽의 구인 및 측정[8,9,19,21], 진로장벽 개입방법[9,25,44]을 연구해왔으며, 진로장벽 집단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44,45]에서는 진로집단상담 참여자들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심리적 진로장벽은 낮게 인식하였으나, 자기진로 이해부족, 자신감부족과 성격문제 등은 유의하게 낮아지지 않은 것을 볼 때, 심리적 진로장벽에서 특히 성격적인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심리적인 진로장벽 문제는 집단프로그램과 동시에 개인상담을 함께 적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전략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Chon[48]의 연구에서도, 아직 진로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신입생들이기에 이력서 작성이나 취업 면접과 같은 구체적인 구직활동보다는 자기 이해와 역량 탐색 위주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교육 형태도 다양하게 반영하여 개인상담, 진로교육, 진로특강, 직업인 인터뷰 등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 요소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신입생들에게 적용하고자 할 때는 집단프로그램 참여자들 중에 성격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선별한 후 이들에게는 집단프로그램 참여 이후에 개인상담과 연계하는 구조화된 방식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집단 속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개인상담을 통해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처치집단에 속한 신입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의 사전 사후 차이는 비교집단에 속한 신입생의 점수 차이에 비해 유의한 향상이 확인되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집단상담을 적용한 Chon[48]의 연구결과, 실험집단에 참여한 신입생들은 처치집단에 속한 신입생들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심리적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고 밝힌 Ko et al.[11]의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신입생들에게 적용한 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입생들의 심리적 진로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통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직업정보와 문제해결, 자기평가는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평균 점수가 유의



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선택과 미래계획은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평균 점수가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Kim et al.[24]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진로장벽을 잘 극복하며 진로발달 및 진로결정을 이루는데 성공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한 Kim[44]과 Kim et al.[45]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효능감의 4가지 모든 하위영역(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고하였다. 대학생에게 진로집단상담을 적용한 Yoon[39], Kim et al.[23], Kim[38], Kim et al.[26], Park et al.[40]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입생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검증한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향상되었으나 세부요인의 목표선택과 미래계획은 비교집단에 비해서 처치집단의 점수가 다소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의 증가가 아닌 것을 볼 때, 이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진로결정 과정에 있어서 직업정보를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들과 이에 대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과 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시도하는 과정의 효능감은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목표를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미래계획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대한 효능감의 변화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대학 신입생들에게 진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 할 때에는 진로결정이 신입생 시기의 단기간에 결정되기보다는 대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고 결정되어야 할 요소임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신입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구체화시켜가는 과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처치집단에 속한 신입생의 자기결정성 점수의 사전 사후 차이는 비교집단에 속한 신입생의 점수 차이에 비해 유의한 향상이 확인되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능성과 관계성은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율성은 비교집단에 비해 처치집단의 사전 사후 차이 평균 점수가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자기결정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장벽을 잘 극복한다고 밝힌 Kim[3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Deci &

Ryan[28]이 제안한 인간의 기본 심리욕구인 자기결정성이 높은 경우 내재적인 동기가 생겨서 자신의 행위를 잘 통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Kim[30]의 연구에서도 자기결정성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서 자기진로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자신의 진로장벽을 잘 극복한다고 하였으나, 자기결정성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결과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즉, 본 연구결과, 대학 신입생이 자신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기술을 사용할 기회를 경험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연결되어져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될 때 내재적인 동기가 발생하여 심리적인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세 하위요인 중에서 자신의 행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자율성의 욕구의 변화 정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성의 내적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진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은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을 낮게 인식하는데 유효한 전략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대학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의 수도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대학 신입생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늘려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공에 따른 진로장벽 해소전략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제한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인문계열이나 체육계열보다 공학계열 전공 여대생의 경우 진로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낮게 지각한다는 연구 결과[51]를 적용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전공별 진로장벽해소 요인을 탐색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지방대학 출신이 취업의 제한점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정과 심리적 진로장벽 인식은 좀 더 크리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진로장벽을 해소하는 진로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더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환경적인 진로장벽보다 심리적인 진로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인지적인 측면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동기적인 측면인 자율성과 유능성, 그리고 관계성의 자기결정성 욕구를 향상시키는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보완하여 대학 신입생의 심리적 진로장벽을 낮추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진로를 결정해나가는 진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 대학 신입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S

- [1] Dong-A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2016). Survey of Students and Analysis of Results. *Research Review*, 44
- [2] K. W. Kim & Y. H. Cho. (2011).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197-218.
- [3] S. Y. Park & D. H. Lee. (2013).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2(1), 23-38.
- [4] A. Y. Lee. (2017). *Effect of a Student's Adjustment of College Life and Learned Helplessnes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 [5] K. A. Albert & D. A. Luzzo. (1999). The role of perceived barriers in career development: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 431-436.
- [6] P. Cardoso & J. M. Moreira. (2009). Self-efficacy beliefs and the relation between career planning and perception of barriers. *International Journal for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9(3), 177-188.
- [7] A. Hirschi. (2011). Career-choice readines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2), 340-348.
- [8] J. L. Swanson, K. K. Daniels & D. M. Tokar. (1996). Assessing perceptions of career barrier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219-244.
- [9] E. R. Son. (2001).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10] A. R. Cha & H. K. Lee. (2014).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and Environmental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pe as a Mediating Variab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1), 343-358.
- [11] M. N. Ko & J. H. Park. (2012). A Comparison of Structural Relations among Internal and external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Aspiration and Career Decision Status for College Students of Difference School Year.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25(2), 81-100.
- [12] K. J. Joe. (2018). *A Meta-Analysis on the Studies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and its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13] K. M. O'Brien, S. M. Friedman, L. C. Tipton & S. G. Linn.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01-315.
- [14] T. Y. Go. (2008).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okpo University, Seoul.
- [15] J. H. Yoon. (2017).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Seoul.
- [16] S. B. Kim. (2016).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Subjective Happiness,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eoul.
- [17] H. R. Hwang & S. J. Ryu. (2009).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Level, Career Decision Making Efficacy, Career Barriers,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Spiritual Well-being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8, 355-380.
- [18] Y. D. Park & K. H. Lee. (2007).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Model of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4), 1041-1056.
- [19] S. H. Kim. (2007).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areer Barriers and Objective/Environmental Career Conditions in University Students' Career Barrier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4), 1057-1078.
- [20] R. W. Lent, S. D. Brown & G. Hackett.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3.
- [21] J. L. Swanson & M. B. Witke. (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31-462.
- [22] Bandur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23] M. Kim & J. Y. Choi. (2016). A Study on Developmen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Improve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Its Effec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5), 123-151.
- [24] M. J. Kim & S. Y. Park. (2017).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Career Barrier: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1), 163-181.
- [25] Y. K. Kim. (2008). The Effect of University Freshmen's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Making Level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4), 1191-1210.
- [26] S. H. Kim & M. J. Kim. (2016).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407-418.
- [27] B. R. Cho & J. M. Lee. (2017). Investigating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Indecision of femal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as the Mediato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 1-12.
- [28] E. I. Deci & R. M. Ryan.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 [29] A. Y. Kim & S. A. Oh (2001). Classification of Motivation on the Continuum of Self-Determin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5(4), 97-119.
- [30] J. S. Kim. (2017). The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career barrier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2), 141-166.
- [31] H. A. Song, S. H. Yoo & K. M. Yun. (2010).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to University Students' Career Explora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1), 264-289.
- [32] M. Y. Lee. (2017). The Pilot Research for Developmen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Promotion Program based on Psychological Needs for Parent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5(1), 51-66.
- [33] H. Flum & D. L. Blustein. (2000). Reinvigorating the study of vocational exploration: A Framework f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3), 380-404.
- [34] S. J. Lee & J. H. Yu. (2009). A Causal Model among Self-determination,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Journal of Asian Women*, 48(2), 35-63.
- [35] J. O. Han. (2004).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Level and Career Indeterminism of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 University, Seoul.
- [36] F. Guay, C. Senecal, L. Gauthier & C. Fernet. (2003). Predicting career indecis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65-177.
- [37] M. H. Hwang & H. Y. Park. (2005). Career Development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80(2), 157-176.
- [38] M. S. Kim. (2011). Effects of Holland's course group consultation program on course career maturity and cours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Regional Studies*, 19(2), 123-138.
- [39] Y. R. Yoon. (2008). *A Study on Effective Career-Guidance in College Students: Focused on Career Subject Class and Career Group Counseling*.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Seoul.
- [40] M. J. Park & D. W. Choi. (2017). The Convergence Effect of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Freshmen of Nursing Department on Learning Motivation, College Life Adapt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339-349.
- [41] E. K. Ha & W. Y. Choi. (2018).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 Career Maturity on College Adjustment-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and Environment*, 16(2), 183-191.
- [42] N. E. Betz, K. L. Klein & K. M. Taylor.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 [43] M. H. Lee & A. Y. Kim. (2008).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 for Korean Adolescent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2(4), 157-174.
- [44] B. W. Kim. (2007). The Effects of Group Career Counseling Program on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Women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8(4),

- 1453-1465.
- [45] E. H. Kim & B. W. Kim. (2008). The Effects of Break Down The Women's Career Barriers Counseling Program on the Perceived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f Women's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4)*, 2225-2239.
- [46] S. Y. Lee & I. Y. Kim. (2014). The Effects of a Career Barriers Searching Problem for Girls'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ntents, 14(8)*, 485-493.
- [47] J. P. Guilford & B. Fruchter. (1981). *Fundamental Statistics in Psychology and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Kogakusha.
- [48] E. H. Chon. (2013). Design-based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Career Education Program centering around the Effec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ollege Common Problem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3)*, 103-122.
- [49] M. S. Park & J. W. Park.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79-87.
- [50] S. Y. Kim. (2016).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6(4)*, 115-122.
- [51] J. Y. Baek. (2008). *The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according to major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gang University, Seoul.

이 미 영(Lee, Mi Young)

[정회원]



- 1993년 2월 : 충남대학교 통계학과 (이학사)
- 2010년 2월 :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문학석사)
- 2015년 8월 :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철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호원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2016년 8월 : 침례신학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 2015년 8월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상담심리, 임상심리, 중독심리, 건강심리
- E-Mail : mylee@howon.ac.kr